

글로벌 시대 글로벌 인재 양성 필요하다

조계종 교육원, 8일 불교영어대학원 설립 마련 위한 세미나

“불교영어 전문가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당면 문제이다. 불교영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이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가칭)불교영어대학원설립(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의 중지가 모아졌다.

이날 행사는 서광 스님(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의 주제발제로 진행됐다.

불교영어 대학원은 국제화 시대 중생을 제도하고 리드하는 수행자 양성의 필요성에 따라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우선 설립된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국내외 국제행사 기획·통역, 국내외 템플스테이·수련회 지도 등 글로벌 시대의 사찰은 영과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문승려가 양성된다.

서광 스님은 “오늘날 사회에서 불교가 지도적 위치를 상실한 것은 중생의 필요를 의면해 왔기 때문”이라면서 “글로벌 시대의 불교는 글로벌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영어대학원의 교과과정은 2년제 4학기 특수대학원 과정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영어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영어 학습을 비롯해 불교영어 용어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영어 불전, 불교 관련 문헌을 습득하게 된다. 영어로 진행되는 명상실습을 비



7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영어대학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서광 스님(가운데)이 발표하는 모습.

롯해 영어권 수행단체 및 수행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심리학, 사회학, 과학, 종교 등 불교 주제의 학제간 통합 학습도 진행된다.

설립안에서는 불교영어 대학원의 졸업이수 학점을 144학점(매 학기당 필수과목 30학점·특별과목 6학점 이상)으로 정해 불교영어의 집중교육이 가능토록 했다.

서광 스님은 “불교영어 대학원의 평가는 전체적·전인적 접근법을 통한 인재양성의 측면에서 양적평가보다는 질적평가 방법에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영어경전·논서·각종 수행서와 논문과 영어

권 불교지도자들의 법문 등을 학인 스님 수준에 맞춰 재편집한 교재가 별도로 개발돼 불교영어 용어·개념 이해를 돕는다.

또, 불교영어 대학원에서는 단순한 영어수업이 아닌 국제적 안목의 문화예술적 체험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영어권 불교수행단체 등과 공동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박승필 국제포교사회 회장(불교방송 PD)는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은 뒤늦은 감이 있다”면서 “언어가 권력인 시대에 영어 포교는 시급한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의 의견에는 참석자 모두 이견이 없었다.

중회의원 수련 스님은 “영어만 다를 것이 아니라 국제 포교를 위해 불교영어 대학원 설립 계획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을 포함한 외국어 전문 대학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운문사 강사 명법 스님은 “설립안의 교과목이 광범위해 선별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영어 통·번역에서 중요한 불교용어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의 총남대 전 교수도 “범어가 한자를 거쳐 우리말로 된 것을 다시 영어로 옮기는 과정은 중요하지만

“한중 교류의 불꽃 퍼길”

쑹썬선 주한 중국대사 자승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쑹썬선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임한 쑹썬선(張森) 주한 중국대사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했다.

쑹썬선 주한 중국대사는 7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만나 한중 불교 교류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쑹썬선 주한 중국대사는 “한국 불교의 도움으로 중국 칭하이성 지진 피해 복구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인사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대사님의 부임 기간 동안 한중 교류의 불꽃이 활짝 퍼질 바란다”며 “한중 불교교류와 증진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10월 한중일 대화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불교가 한중일 삼국의 우호증진과 동북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동국역경원 이정도일 줄 이야 무비 스님 취임 2개월만에 사퇴

동국역경원장 무비 스님이 취임 2개월 만에 돌연 역경원장직을 사퇴했다. 윤하·월운 스님의 원력을 이어 제2의 도약을 준비했던 동국역경원은 무비 스님의 퇴임으로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동국역경원 관계자는 “무비 스님이 6월 8일 역경원장직을 사퇴했다. 갑작스런 스님의 사퇴에 학교 측은 사직 처리를 미룬 채 쉬쉬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무비 스님은 동국대가 전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일방적으로 해임한 지 1년 6개월 여 만인 지난 4월, 월운 스님의 추천으로 동국역경원장에 취임했다.

동국역경원 관계자는 “취임 후 동국역경원의 편제, 인력, 예산 등을 살펴 본 무비 스님의 고민이 컸다. 동국역경원의 낮은

위상 등 산적한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 사퇴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무비 스님은 주변인들에게 “취임 전 동국역경원이 이정도일 줄 몰랐다. 역경원장이라는 자리가 무의미하다.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역경불사를 수행하는 동국역경원장 자리가 명예직인 줄 알았던 것 아니냐. 인력 예산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들이 거친 일이라 못하겠다는 무비 스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무비 스님의 사퇴는 관심과 지원 없이 원력과 신심만으로 역경불사가 이뤄질 줄 아는 풍토에서는 당연한 귀결로 역경불사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108배 참회하고 사과해야...”

명진 스님, 이동관 홍보수석 참회 촉구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 안상수 의원의 유감 표명을 수용하는 대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의 참회를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7월 4일 봉은사 일요법회에서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사과에 대해 흠족하지 않지만, 이명박 정부의 떨어진 도덕적 수준을 감안하면 그 정도

표현도 도덕적이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동관 홍보수석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고발 건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봉은사 부처님을 찾아와 108배 참회하고 마음 상한 신도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참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통한 자비

행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은 6월 21일 국회에서 “(봉은사 외방 의혹 발언) 사실이려면 명진 스님과 봉은사 승려들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동관 수석은 4월 13일 명진 스님이 일요법회 내용을 문제 삼아 스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동섭 기자

사찰부동산 처분 수익금 법제화 조계종,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 공포

사찰부동산 처분시 발생하는 수익금이 목적불사에 사용토록 법제화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6월 29일 ‘사찰부동산관리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했다.

시행령은 3월 제183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제정된 ‘사찰부동산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사찰부동산 처분시 수익금의 용처를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조계종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의 처분시 수익금은 △신도시 종교용지 매입 △불교회관(전원법회관) 건립 △포교소 건립 △교육 및 사회복지 시설 건립 등 목적불사에 사용토록 했다.

또, 1000만원 이상 사찰소유의 망실·유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종단 목적사업기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했다.

조동섭 기자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름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회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10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본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www.dongsanbud.net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
1년	근본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당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2. 모집인원
 -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일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 입학일시: 불교학과 2010년 8월 7일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입학식 및 개강
4.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년 7월1일부터 접수중
 - ▶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영환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산반 30명)	초발심자경문,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장제) 등	심만준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렛,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제다학(1),(2) 한국의 한다	오양기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불,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봄, 여름, 가을, 겨울)	정선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산 각 30명)	불교포교론	할 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불교학과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산 각 20명)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다도학과(2년과정)	초기불교수준(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경, 대관다론, 다부, 동다승, 다산전	김진숙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법배의식반 (2년과정 20명)	법배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